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2015년 5월 16일 광화문 세월호 분향소를 방문해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현대불교신문 자료사진**


올 3월 28일 불교·가톨릭·개신교·원불교 4대 종교계는 세월호 참사해역서 미수습자의 조기 수습을 기원하는 기도회를 봉행했다. **사진제공=사회노동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는 2016년 7월 8~11일 광화문 광장서 세월호의 조속하고 온전한 인양 촉구 72시간 3만배 기도회를 봉행했다. **현대불교신문 자료사진**

9명 유해 수습 진정한 인양… "끝까지 함께 기도"

세월호 참사와 함께한 조계종 1085일의 기록

세월호가 1073일 만에 마침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던 3월 23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됐다'며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됐다고 말하는 동안 '아직 끝난 게 아니다'고 힘주어 외친 이들이 있다. 대한불교조계종이다. 그들은 "세월호 인양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미수습자 아홉 분을 가족 품으로 온전히 돌려보내는 것이 진정한 인양 완료"라며 사람들의 관심을 환기시켰다. 지난 3년간 줄곧 기다려왔던 세월호 인양 소식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뻐하지 못하고 더욱 바빠진 것은 아직 눈감지 못한 9명의 미수습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조계종, 미수습자 9명 끝까지 포기 안 했다

길고도 긴 수학여행이었다. 2014년 봄, 제주도 유채꽃밭에서 찍은 예쁜 딸의 사진을 기다렸을 엄마의 핸드폰엔 배가 가라앉고 있단 믿을 수 없는 문자메시지가 전해졌다. '금방 돌아오겠지'라 생각하며 기다렸던 시간이 벌써 1085일이다. 팽목항을 찾는 사람들이 점차 줄어들수록 잊힐까 두려웠고, 배가 뭍으로 나와도 그 안에 내 가족이 없을까 무서웠다. 그런데 마침내 세월호가 캄캄하고 차가운 바다 속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이제 다시 사람들이 미수습자 9명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조계종은 3년간 쉼 없이 미수습자 가족들의 곁을 지켰다. 사람들이 혹시나 미수습자 조은화, 허다윤,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고창석, 권재근, 권혁규, 이영숙 9명을 잊을까 광화문 한복판에서 그 이름을 외쳤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정부에겐 여전히 지켜보고 있음을, 또 미수습자 가족들에겐 여전히 곁을 지키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허다윤 양의 어머니 박은미 씨는 3월 28일 본지와 전화인터뷰서 "천일이 넘도록 내 딸을 찾아달란 말 밖에 안했다. 우리(미수습자 가족들)는 소수이다 보니 점점 소외됐고 그럴수록 많이 지치고 힘들었다. 하지만 조계종은 3년간 함께해줬다"면서 "양한웅 사회노동위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조계종이 미수습자를 찾아야한다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줬다. 내 가족과 다름없단 마음으로 기도해주는 것이 느껴져 너무 감사했다"고 전했다.

2014년 4월 16일 그 후 불교계는…

세월호가 인양되기까지 정부는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다. 2015년 4월 해양수산부가 인양을 발표했지만 그 후에도 선수들기부터 선미들기까지 어느 하나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번번이 지연됐다. 그때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는 광화문으로 나갔다. 2016년 11월 25일 '세월호의 조속하고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기도법회', 7월 8~11일 '세월호 인양 촉구 72시간 릴레이 3만 배 기도', 7월 4일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기원하는 5대종교 기자회견' 등을 열었다.

특히 2015년 5월 16일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과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은 광화문 세월호 분향소를 방문해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이밖에 미수습자 수습을 위한 세월호 인양 속개를 촉구하며 3차에 걸쳐 오체투지를 실시하기도 했다.

조계종의 발길은 팽목항으로도 향했다. 2015년 1월 29일~2월 14일 19박 20일 동안 진행된 '세월호 가족 안산~팽목항 도보행진'에 5박 6일간 합류했으며, 2014년 11월 29일엔 광주전남불교영산회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미수습자를 위한 수륙재를 개최하는 등 개별단체 및 사찰들의 추모 활동도 두드러졌다. 특히 사회노동위는 2017년 3월 17일과 1월 20일, 2016년 10월 20일, 8월 11일, 7월 20일엔 배를 타고 직접 참사 해역으로 나갔다.

박은미 씨는 "불교계에서 기도회를 비롯해 많은 행사를 주도해주셨다. 단순히 한 차례 행사에 그쳤다고 절대 생각지 않는다"며 "종교는 다르지만 미수습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간절함이 느껴졌다"고 전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발생 직후엔 조계종의 발 빠른 대응이 돋보였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사고 당일 진도 향적사와 현지 상황을 공유한 후 그날 저녁 긴급구조대 선발대 파견을 결정, 이튿날인 17일 실종자 가족이 모여 있는 진도 실내체육관 옆에 부스를 설치하고 원조에 나섰다. 또한 종정 진제 스님은 19일 팽목항을 찾아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들을 위로했다. 같은 날 오후 7시 서울 조계사에선 불자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월호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발원하는 108배가 봉행되기도 했다.

'세월호'와 함께한 조계종의 1085일

14.04.16. 세월호 사고 발생
04.17. 조계종사회복지재단, 팽목항에 긴급구조대 급파
04.19.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팽목항 위로 방문
1500여 불자 세월호 실종자 무사귀환 발원 108배
04.29. 포교원, 세월호 실종자 극락왕생 발원 추모법회
05.06. 조계종, 팽목항서 봉축 법요식
05.20. 조계종, 조계사서 세월호 희생자 대규모 추모재
05.23. 조계종 노동위,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책회의 합류
06.03. 전국 사찰서 세월호 희생자 49재 일제 봉행
07.10. 자승 스님, '세월호 특별법' 지지 의사 표명
07.16. 조계종 노동위, 세월호 특별법 제정 요구 무기한 단식 농성
07.24. 조계종, 세월호 희생자 추모 100재
08.02. 노동위,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3000배 봉행
09.01. 자승 스님,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긴급 호소문 발표
09.15. 조계종 종무원조합,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릴레이 단식
09.22. 노동위, 세월호 특별법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입제
10.28. 노동위, 세월호 진상규명 72시간 철야 3000배
11.29. 팽목항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미수습자를 위한 수륙재
12.29. 자승 스님, 세월호 자원봉사 스님들에 표창 수여
15.01.08. 조계종, 세월호 수색 민간 잠수사 초청 격려
03.26. 노동위, 세월호 인양촉구 오체투지
04.07. 노동위, 세월호 인양 촉구 및 특별법 반대 단식 농성
04.14~16. 조계종,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법회
05.16. 진제·자승 스님, 광화문 세월호 분향소 방문
07.14.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1000배 기도
07.23. 노동위,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촉구 법회
09.09.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1차 오체투지
09.23.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2차 오체투지
16.03.17. 사회노동위, 미수습자 가족과 함께하는 세월호 인양 콘서트
04.14. 사회노동위, 팽목항서 세월호 2주기 추모법회
06.01. 자승 스님, 광화문 세월호 유가족 캠프 방문
07.08~11 사회노동위, 세월호 인양 촉구 72시간 3만배 기도
07.20. 사회노동위, 참사 해역서 인양 촉구 1차 기도법회
11.25. 사회노동위, 세월호 인양 촉구 법회
17.03.17. 사회노동위, 참사 해역서 인양 촉구 5차 기도법회
03.24. 조계종,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촉구 논평문 발표
03.26. 사회노동위, 미수습자 9명 수습 총력 촉구 성명문 발표



사회노동위 필두 3년 간 지속적 활동

사고 직후 팽목항 '긴급구호단' 급파

사노위, 광화문서 72시간 릴레이 기도

참사 해역서 인양촉구 기도 5차례

3년간 미수습자 가족 곁 지킨 양한웅 위원장

"꿈인 것 같습니다. 3월 22일 해양수산부가 '시험인양'을 한단 말에 팽목항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세월호가 불쑥 올라왔습니다. 아직도 실감이 안나요. 이렇게 쉽게 될 것을 왜 그리 안됐는지 정부가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3월 29일 며칠 만에 세월호 인양 현장서 서울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은 양한웅 사회노동위 집행위원장이 본지와 전화인터뷰서 3년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다짐을 밝혔다. 양 위원장은 3년간 미수습자 가족들과 유대관계를 맺어오며 미수습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환기시켰다. 이유는 단 하나, 누군가는 그들을 도와줘야만 했기 때문이다.

"2014년 11월 세월호 수색이 종결된 후 팽목항을 찾는 사람들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누군가는 함께 기도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힘없는 자들을 위해 부처님이 아니면 누가 함께하겠습니까. 오직 그 마음으로 미수습자들의 수습을 위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이처럼 고통 받는 사람들 곁에 머무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며, 사회노동위는 그 사명으로 미수습자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미수습자 9명이 가족의 품에 돌아가는 그날까지 함께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하며 사회노동위는 세월호가 거치될 목포 신항에 미수습자의 온전한 수습을 기원하는 기도법당을 마련했다.

"관세음보살님은 세상 곳곳의 목소리를 항상 들어주시는 분이니까 우리의 간절한 기도도 반드시 들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절절한 마음으로 가족을 찾기 위해 1080여일을 견뎌온 미수습자 가족들과 사회노동위는 끝까지 함께할 겁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센타
등록번호 : 138-50-00260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2회 특별수련)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뇌의핵심〈송과체〉·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 : ☎ 02-393-8027(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 명)

제96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 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4월 30일 오후 5시
◆ 강의일시 :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